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십자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설날

다음 주일(14일)은 설날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이 설레고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 마음 한 편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조상을 섬겨야 하는 제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조상에 대한 제사 의례를 우리나라 고유 의 미풍양속(美風良俗)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조상제사 의식이 조선시대 때 정치적인 이유로 강조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출 20:4~6).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설날에 제사 문제로 범피하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한 후 돌아가신 분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핏박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 10:14).

*살람 가정예배 모본은 본지 7면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

주제 : 범피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이사야 53:12)

일시 : 2월 26일(금), 저녁 7시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절대성을 보여 주신다
(로마서 9:1~13)

'살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였다. 특히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더 이상 다른 말을 붙일 것이 없도록 분명하고 앞뒤가 질서 정연하였다. 마치 이것으로 끝나야 마땅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의 끝을 여기서 내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9~11장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 율법도 주셨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특별한 선민임을 증거한다. 이 모든 약속은 특별히 말미암아 오실 메시야에 초점이 있다(롬 9:4~5).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지 않고 배척했다(요 1:11).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 하시는 그 순간에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 그 이상의 문제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약속들을 이루려 하시는 순간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의 약속들을 모두 폐기하시려 하는 것이 아닌가?'이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로마서 9~11장에 기록하였다. 그는 믿음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전혀 모순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약속을 주신 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하나님 의 택하신 자녀로 삼을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추구할 때에 배척당하는 책임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이 배척당 하는 것이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이 꼭 필요한 어떠한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성을 보여 주실 것이다. 약속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으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스라엘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과 영으로 난 이스라엘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후손 모두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한다(롬 9:6). 오직 영으로 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절대권이 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육체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통하여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하다(롬 9:8). 하나님은 그의 약속 가운데서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절대권 안에서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약속을 예비하셨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한 약속이다. 이 약속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롬 4:16).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한다. 오직 믿는 자만이 약속의 자녀이다. 아멘.

Sermon for Next Sunday

WHAT IS THIS TIME?

⁽⁴⁾Gathering them together, He commande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what the Father had promised, "Which," He said, "you heard of from Me;

⁽⁵⁾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⁶⁾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were asking Him, saying,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Acts 1:4~6)

When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met with His disciples they were so excited. They really concentrated on everything He said. Jesus tol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the coming Holy Spirit. They were expecting something big to happen soon. Gathered all together with the same mind, listening intently to Jesus' words, they asked Him,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Acts 1:6). They were concerned about God's ministry time. Even before Jesus resurrected, His disciples privately asked Him,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Mt. 24:3). Like Jesus' disciples, the Old Testament prophets were also very interested in the future. Today's Christians are no different. A lot of them are talking about the identification of the Antichrist with the number 666, "Here is wisdom. Let him who has understanding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the number is that of a man; and his number is six hundred and sixty-six" (Rev. 13:18). I've seen numerous books on this topic by authors who don't read the whole Bible. The Bible only tells us that these things will happen before Jesus' return. Are you wondering and asking what time this is? Let's look at the meaning given to us in the Bible.

This is the time to wait for God's promise. Jesus specifically instructed His disciples to wait for the coming Holy Spirit, "Gathering them together, He commande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what the Father had promised, 'Which,' He said, 'you heard of from Me;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Acts 1:4-5). Waiting in Jerusalem was not an easy command to follow because of the severe persecutions taking place. You'll remember that not long after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most Christians were forced to scatter abroad. The disciples waited for God's promise, just as real Christians today need to come to Jesus Christ and wait for God's promise. Everyone who waits with faith gets blessed,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Yes, wait for the LORD" (Ps. 27:14). The Lord will give you encouragement and take care of you, "Rest in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 because of him who prospers in his way, Because of the man who carried out wicked schemes" (Ps. 37:7). The Lord will give you the power you need to endure, "Ye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Will gain new strength; They wi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et tired, They will walk and not become weary" (Is. 40:31). We must wait for God's plan,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 wait for Him, To the person who seeks Him. It is good that he waits silently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Lam. 3:25-26).

This is the time to witness for Jesus Christ. Jesus' great commission for all His disciples is to witnes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itness the gospel. You can start in your own home! The primitive church started in Jerusalem, and scattered from there because of severe persecution. Even though they scattered, they still witnessed. The Holy Spirit's power helps everyone to serve the Lord. Peter testified of Joel's prophecy, "EVEN ON MY BONDSLAVES, BOTH MEN AND WOMEN, I WILL IN THOSE DAYS POUR FORTH OF MY SPIRIT And they shall prophesy. 'AND I WILL GRANT WONDERS IN THE SKY ABOVE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BLOOD, AND FIRE, AND VAPOR OF SMOKE. THE SUN WILL BE TURNED INTO DARKNESS AND THE MOON INTO BLOOD, BEFORE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SHALL COME. AND IT SHALL BE THA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Acts 2:18-21). We must witness. We must wait for the Spirit's leading power and witness.

This is the time to unify, not argue and separate. Jesus' followers had "one mind" and continuall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Acts 1:14). The 21st century church is experiencing serious divisions, but this is not the time to fight with each other. Congregation members who favor one elder over another, or think one person takes the pastor's side over another, and all the other nonsense problems need to stop. This is the time to be of one mind. We need to rid ourselves of jealousy, selfishness, and pride. It's so sad, and we can't allow the devil to continue destroying and infesting Christ's body. Before the Holy Spirit came down, Peter denied Jesus three times, Thomas doubted, but after the Holy Spirit's coming they all changed. They all became witnesses and loved each other and cared for each other. They gave up everything because they held the gospel above all, "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 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were giving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abundant grace was upon them all. For there was not a needy person among them, for all who were owners of land or houses would sell them and bring the proceeds of the sales and lay them at the apostles' feet, and they would be distributed to each as any had need" (Acts 4:32-35). We need to change and help each other.

My dear friends, many churches are moving forward on their own initiative. We need to look at this time and wait. We need to look at this time and witness. This is the time to unite our hearts in God's will. Please don't concern yourselves with worldly things. Jesus is going to come and we need to be ready. Amen. 🙏

지금은 어느 때인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②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사도행전 1:4~6)



김성관 목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매우 흥분
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뭔가 곧 큰 일이 일어날 것
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 이 때니이까”(행 1:6).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
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숫자 666과 적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
으니 충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
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 13:18). 이 주제를 다룬 많은 책을 읽어 보았지
만 그 책의 저자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궁금해 하거나 질
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
들에게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
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 1:4~5).
사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왜
냐하면 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강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
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
다릴지어다”(시 27:14). 주님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피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시 37:7). 주님은 여러분에
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
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
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
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예 3:25~26).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때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의 지상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우리에게는 복음 전
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로 인해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
습니다. 성경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
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큰 그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으리라 하였느니라”(행 2:18~21).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는 성령의 이끄시는 능력을 따라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때이다

지금은 논쟁하고 나열 때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
님의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행 1:14). 21
세기의 교회는 심각한 분열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각자 선호하는 장로가 다르고, 지지하는 교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리석은 다툼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
금은 모두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기와 이기심, 자존
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께서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
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성경께서 오신 후 그들은
모두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서로를 사랑했
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무리
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과 집 있는 자는 팔이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행
4:32~35).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스스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분별하며 복음을 증거해
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
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H**

메시아의 죽음 20

예수님의 기도와 제포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다. 그는 복음을 영접한 뒤에 거듭났으며 이후에 아주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다. 하나님은 이런 누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로 사용하셨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였으며 사건의 설명과 순서도 가장 논리적이고 정확하였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직속제자나 형제들이었던 것에 비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초대교회의 기도(갈 2:9)과도 같은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많이 비슷하다는 점도 놀랄만한 일이다. 요한은 누가를 잘 알고 있었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연구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가진 동산에 대해서 요한은 '그 곳'(요 18:2)이라고 기록하였다.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을 누가가 기술하였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눅 22:39).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지명을 밝혔고, 항상 기도하시던 곳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기록하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누가의 기술은 아주 구체적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눅 22:43~45).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28~29 말씀을 비교해 볼 때 그 흐름이 아주 비슷하다. 누가는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요한은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은 흐름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공관복음서(마태·마가·누가)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누가는 안디옥에 살고 있던 이방인의사였

예수님이 유다,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에게 잡혔다고 요한은 기록하였다(요 18:3,12). 누가의 설명도 거의 비슷하다(눅 22:52).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밝혔고, 누가는 그 무기가 '검과 몽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던 현장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은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에 그 설명이 구체적이다. "이에 사론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요 18:10).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도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오른쪽 귀가 베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밝혔다. "그 종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눅 22:50).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인간적인 슬픔으로 인해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의 신앙을 받았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군인들을 대동하고 잡으러 왔다. 오병이여 기적(마 14:19)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잠깐이었지만 물 위도 걸었던 베드로(마 14:29)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힐 때 그대의 기도를 기대하며 칼을 빼었다. 이와 같이 행동한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নিজ의 땀방울을 들었지만 그때뿐이었고 삶은 세상 것으로 가득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원했던

것이다. 복음과 삶이 별개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자. "메시아의 죽음은 나의 영광, 나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1부예배 메시지(2010. 2. 3)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야고보 4:12)



죄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 4:12).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

● **하나님은 쓸데없는 경고를 하시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경고를 낱말한다. 그러나 야모스를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는 집을 주기 위한 단순한 과정이나 강조가 아니다. 이 경고는 죽음의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 따라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경고를 간파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기 보다는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준비에만 힘쓴다. 사람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익숙하며 거 짓말하는 데 능숙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것은 밝혀 드러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벧전 4:3~5; 롬 14:11~12).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 가장 공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후 5:10).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의 땀방울을 일구고 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7~8).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쓸데없는 경고를 하시지 않는다.

●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이 명령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만나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나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렘 6:8).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로 2:16). 우리가 배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나의 의, 자존심, 교만'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사 64:6). 지금 세상은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때 어둠의 날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창 3:8). 모든 것은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델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단 5:25~26).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 뜻을 준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암 4:12).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마 5:8). 따라서 우리의 준비는 죄의 자백 즉 진정한 회개(요일 1:9).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롬 10:13; 행 16:31). 우리는 하나님 뜻을 준비를 할 수 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쓸데없는 경고가 아니다. 죽음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나의 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와 진실로 회개하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아닌 완전히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다(고후 5:17). "죄 없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오라." 아멘.

‘선한목자교회’에서 온 편지

저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 몽골에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 하고 3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과의 시간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기에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배, 성경공부,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기에 주님은 매순간마다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만질음씩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호지르트 지역에 2009년 12월에는 ‘호지르트-306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선한목자교회’와 ‘호지르트-306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특히 주일예배와 성경공부 모임은 성령과 더불어 중언교회에서 보내주시신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전치어로 번역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의 사역, 아니 저의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분명 제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향하였던 저의 인생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초그만 시험에도 넘어치고, 실패하던 내 삶이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습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온 세상에 전하여 할 메시지를 몽골 땅 위에 사용하기로 부르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중에 지혜와 큰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니 지금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관용으로 써 이길 힘까지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목자교회’와 ‘호지르트-306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르갈(현직인선교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선교사

2년에 걸쳐 준비해온 선교였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선교였다. 사역 3일째 한 마을에서 한 소녀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는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옆에 서 있던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역시 “아멘”하며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고 있었다. 바로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소녀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다른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원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노모께서 몸져 누워 계셨고, 부인도 심한 기침으로 병환이 역력했다. 그 두 분과 또 다른 세 자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이렇게 해서 반년 세 집의 8명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고3, 중3, 초등 4학년인 3남매를 두고 선교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지만 성령님은 무조건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별래만도 못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현지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너무 많았다. 주님께서 추수할 곳은 많으니 일꾼은 없다(마 9:37)고 하신 말씀을 이제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선교사’라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이미경(집사, 6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6일(목) ~ 2월 2일(화)	고등부 1팀	구승희
1월 26일(목) ~ 2월 2일(화)	고등부 2팀	윤순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1일(목) ~ 2월 19일(금)	대학부 1팀	임광진
2월 11일(목) ~ 2월 19일(금)	대학부 2팀	김희동

복음의 능력

선교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860년 경에 복음이 들어왔으나 불교가 95%이고, 기독교는 2%에 불과할 정도로 복음 전파가 어려운 선교 불모지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부족한 수확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농아인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모든 인간의 생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도착한 후 먼저 농아인들이 있는 일터를 알아보기 위해 농아인회회를 방문하였지만 연발 휴가로 농아학교는 방학 중이었고, 직장들도 문을 닫아 농아인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소개로 농아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집이 멀어서 고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농아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귀기울여 듣고 영접하기까지 따라하는 농아인들을 바라보며 이곳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농아학교 영아교사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였고, 학생들이 교향에서 돌아오면 복음을 가르쳐 주며 전도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농아인과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농아교사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농아학교 선교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학교 옆에 있는 세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달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농아친구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세차장에서 많은 농아인을 만날 수 있었고, 매일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특히 농아인들 중에 한 명은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예전에 나쁜 행동으로 양팔에 문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우리와 만났으나, 3일 동안 매일 우리와 만나면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배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농아인들을 찾아 대학교와 시장에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농아인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기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했던 농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의 모든 준비 과정과 활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지호(집사, 에바다부)

오만하고 자신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그만두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2년여까지 다니다가 목사님 설교가 맘에 와 닿지 않는거나 시간 낭비인 것 같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결국은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특하면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에 나와서 일드려 잡이나 자고 말을 안 들어 선생님의 예를 배우는 반항의 모습이 저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에 남편과 친구의 간절한 권유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흡하지만 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기 싫어 어떠한 핑계든 찾아내려던 마음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끔은 일이 생겨 빠지기는 해도 집에 있으면서 주일을 안 지키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이것만도 저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가족양육반 선생님들이 "일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까지 주님의 자식이다. 손뼉을 꼭 잡고 절대 놔주지 않으신다. 언제든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신자 가운데 저처럼 오만하고 자신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참으로 어려운 성령의 지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윤임섭(성도, 새가족양육부 1월수료자)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처음으로 맞는 2박 3일의 중동부 겨울수련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기대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낮고 찬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말씀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남은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열접하게 되며,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가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로 인한 설렘, 그리고 기대였던 것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였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다.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보다 주인 삼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다짐한다.

(김혜진(중동부))



성경을 암송하는 기쁨 그리고 은혜

세대 간의 벽이 없는 금요찬양집회에는 항상 절망과 말씀의 은혜로 가득하다. 특히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은 더욱 놀라운 감동으로 넘친다. 지난 금요찬양집회 시에 마태복음 1장을 암송했던 청년1부 지체들도 그랬다.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 사랑 없음, 상처 있음, 무거운 짐들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이연)

▶말씀 암송을 왜 할까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암송을 하고 난 후 말씀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매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현국)

▶힘든 일이 있을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일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희진)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기에 말씀 한자 한자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사랑할 줄 알면서 선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함에 답대해줄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승희)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함께 했기에 더욱 집중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영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야 하기에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었습니다. (윤지현)

▶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외울 때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혜경)

▶12월 마태복음 1장의 설교를 통하여 계보안의 4명의 여인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 성경 암송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의 연약함으로 1월 27일 수송 날짜를 받게 되어 참여하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수송 날짜가 뒤로 미뤄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 기쁨으로 말씀 암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암송을 시작한 부분은 18절이었는데 계보의 끝인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말씀 암송은 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남정)

취재/ 이은진 기자

모임

1. 1지회 권사기도회 (1·5·9·13·17·21교구)
일시: 9일(화) 오전 10시 교회출발
장소: 충현기도원
2. 정기당회
일시: 10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1. 조기옥 씨(조명순 성도의 부친·김형정 성도의 장인, 8교구 광주3구역) / 1일 별세, 3일 장례
2. 하은덕 타교집사(서정에 집사의 모친·공용옥 집사의 장모, 23교구 수내구역) / 1일 별세, 3일 장례

일시 : 2월 7일(오늘) 장소 : 갑곶리울

시 간	강 의
18:15~18:25	오리엔테이션
18:25~19:15	주제강의(기도하며 나가는 선교)
19:15~19:40	2010년도 선교정책

- 모집 부문 식당 주방에서 일하심 댕여자 세례교인
-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태교인
- 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종천교회 사무국
☎ 031-766-5425

1. 자격 세례교인 교사자격증 소지자
대학에서 유아교육 관련학과 전공자,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2. 문의 충청어린이집 ☎ 554-7054

일 시 : 2월 13일(토)~14일(주일) 장 소 : 충현교회(13일 : 제1교육관, 14일 : 아엔홀)

1. 감사기간: 2월 7일(주일)~2월 28일(주일)까지
2. 감사장소: 감사위원회 제1교육관 503호
3. 감사대상: 전 교회학교, 전 찬양대, 집사회, 권사회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원장),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일 시: 여전도회 17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20일(토) 14:00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차회: 301호 2차회: 307호 3차회: 401호 4차회: 407호

일 시 : 2월 28일(주일) 12:00~14:00 장 소 : 제2교육관 2층 집회실

일시: 매주일 15:00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제자, 가족자, 교고자	장소	유미세제자	장소
2월 14일 (대동주일)	15:00~15:50	성경 개요 (대한침묵회)	교육관 509호	(세제자) (대한침묵회)	교육관 509호		
	16:00~16:50	가톨릭 22시 (단군절)	교육관 309호	(세제자) (이회현 목사)	교육관 309호		
2월 21일 (주일)	12시	가톨릭 개요 (가톨릭)	교육관 309호	구원자 (이회현 목사)	교육관 309호	유미세제자 (김정현 목사)	교육관 301호
	22시		교구별 강습소				
	16:00~16:50	문답	문답	문답	문답		
2월 28일 현장예배		성인 학습자 세제자 (양재계, 본관)			유미	(호프 3기, 김일환)	

	8 (월)	9 (화)	10 (수)	11 (목)	12 (금)	13 (토)	14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정창수	유원철/강두형	하형욱/김유환	김정훈/문영규	양태성/나승은	최진철/홍순애	하종철/오미자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2/10	수요일 수요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로마 8:31-37) 김성관 목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시 26:5-9) 최진원 목사	유재진 김정민	홍은기 김영미	하나님 아버지 찬양 곡은(조상나 찬양대) 주의 이름을 내가 들노라(실로암 찬양대)
2/12	금요일	김성관 목사	김근영	김영준	예루살렘 찬양곡 / 소르노노 강변의 / 이교회의 중창단
2/14	주요일 II	저녁은 어느 메탄가(렘 1:4-6) 김성현 목사	김영준	유혜광	예배 전 찬양
	주요일 III	저녁은 어느 메탄가(렘 1:4-6) 이희식 목사	하정희	최희덕	찬려한 새벽 / 마이아민 강변(최영인장노자)
	주요일 II	저녁은 어느 메탄가(렘 1:4-6) 김성관 목사	양용준	이보신	갈보리산 위에 / 소르노노 강변(영광장노자 찬양대)
	주요일 IV	저녁은 어느 메탄가(렘 1:4-6) 강성종 목사	탁정원	김규민	예수님을 오라 하라 / 마이아민 강변(최영인장노자)
	주요일 V	저녁은 어느 메탄가(렘 1:4-6) 김근원 목사	박정민	김기수	이교회의 강변에서 / 바울로 박사(영광장노자)
주일상징	회개는 나를 누구의 하나님이나 1613-17 김성관 목사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차량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평일예배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II 오전 9:00	본당		교우영어	저녁 10:30	교우영어집회 후 관악산출발
	III 오전 11:00	본당				
	IV (수화, 장애인 등 동의를 제해)	본당				
	V 오후 1:40(교우 등 동의를 제해)	본당				
주일강화예배	오전 3:30	본당	특별예배	오전 11:30	드리는 주일 특별 예배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및 한국어. 오기 15분 전 도착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한티어, 인도네시아어를 드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젊은교우 등 동의를 제해)	본당				
주일강화예배	오전 5:00	본당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ven One World Worship Service at St. Lukie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ne World Worship Service.			
소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강강화예배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경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경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경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 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경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10호
초등 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성당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중등부	오전 10:30	갈릴리움	사망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예배다루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탁아부	(주) 오후 8:30~오후 6:00 (월) 제4 6:30~제2 9:00	선교관 1층
청년 1부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생각양육부	오후 12:30	메디나홀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국제교류위원회	오전 11:00	야미홀
			유형준조성대신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종혜이민지원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문화재단이공	주간교육	추후보고

섬 · 기 · 는 · 부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illegible]